

#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이상과 열정을 담은 두 권의 책

이기웅 \_ 열화당 대표

건축가 김종업 선생의 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를 편집할 1980년 무렵, 김 선생으로부터 르 코르뷔지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1952년 파리의 코르뷔지에의 연구소에 들어가 네 해 동안 코르뷔지에와 함께 작업하면서, “하루 스무 시간에 가까운 연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의 축적이 자신을 크게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샹디가르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낭트 아파트, 룡상 성당 등이 모두 그 시기의 건축물들이다. 파주출판도시 건설 작업을 돕기 위해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건축가들과 함께 지난 몇 해 동안 이 위대한 건축가의 흔적을 찾는 뜻 깊은 건축기행을 한 바 있다.

그의 선조가 대대로 살았으며 그의 아내의 고향이기도 한 캅 마탱은 아름다운 지중해변 언덕에 있었다. 그가 1965년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던 오두막집 근처에는 그들 부부의 묘가 있다. 마르세이유의 18층 집합주택인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르 코르뷔지에의 말기 건축이념을 잘 나타낸, 이른바 ‘수직의 전원도시’ 였다. 나는 벨포르의 룡상 성당에 이르러 르 코르뷔지에의 절정을 만났다. 이 건물은 1950년대를 경계로 건물을 ‘기하학적인 기계’라는 이미지에서 ‘곡면의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이동하여 설계된 훌륭한 결실이었다.

최근 출간된 《건축을 향하여》와 《도시계획》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동안 조각조각으로 내 머릿속에 뒹굴던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생각의 파편들이 어렴풋하게 질서잡히며 조합되고 있음을 느꼈다. 일반 책의 구성과는 달리 《건축을 향하여》는 일상의 이미지들을 모아 글과 섞어가면서 엮어낸 특이한 편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의 말미에는 그가 스물한 살 되던 1908년 스승인 샤를르 레플라트니에에게 보낸 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구시대 미만해 있는 진부함과 비과학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근대건축에서의 혁명을 꿈꾸는 생각이 글 도처에서 번득인다. “저의 개념은 이미 정립되었습니다. …저는 부질없는 공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 그 자체와 싸우고자 합니다. …건축가는 조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인간이어야 하며, 예술가와



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글에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철근 콘크리트 및 구조 전문가인 페레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평생토록 꿈꾼 60층 높이의 거대한 탑형 구조물과 그런 건축물로 이루어진 ‘우리시대의 도시’와 긴밀한 관계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책 《도시계획》에서 전개되고 있는 300백만 거주자를 위한 ‘우리시대의 도시’ 계획은, 복잡해지고 거대화하는 미래의 산업사회, 기계시대를 예견하면서 제안하는 이 혁명가의 야심이 집약된 계획으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책 《건축을 향하여》는 크게 일곱 부분으로 전개되는데, 엔지니어가 건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오늘의 건축을 크게 경고하는 내용과, 건축가가 상기해야 할 세 가지 교훈으로 불림, 표면, 평면을 예증과 예화를 들면서 설명한다. 이 글에서 그는 건축에서 그동안 존중돼 왔던 ‘양식’이나 이에 수반하는 온갖 장식들의 의미 없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건축에 있어서 양식은 여성의 머리에 꽃힌 깃털장식과 같다. 그것은 때론 예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대형여객선-비행기-자동차 같은 기계화한 수송수단에서 새로운 시대의 기능성과 양식성이 존재함을 확신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건축개념에 도입되는 영향을 암시한다. 한편 그는 “로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건축적 견지에서 옛 로마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미켈란젤로의 성베드로 성당의 계획안은 인간지성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이었지만, 앱스와 돔의 드림은 그가 완성시켰으나 나머지는 야만인들의 손에 넘겨져,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고 개탄한다. 로마의 교훈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항하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게 로마는 파멸의 장소라는 것이다.

그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에 이르는 도시 팽창, 생산 시설의 집합을 예견하면서 대량생산 주택에 관심을 두었다. 하여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설계를 집요하게 연구, 제시하고 있다. “주택은 더 이상 묵직하고 시간과 마모에 도전하는, 그것을 통해 부를 자랑하는 호사스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택은 자동차가 도구가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적인 예견인가.

이 책과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야만 되는 《도시계획》에서 화두로 등장하는 말, ‘당나귀의 길, 인간의 길’은 그가 도시설계에서 가장 기초로 삼는 상징어다. 당나귀는 빈둥거리며 생각

하지 않으며 안일하다. 따라서 ‘당나귀의 길’은 굽고 무질서하며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목적이 뚜렷하여 그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간다. 그러므로 ‘인간의 길’은 직선이며 건강하고 완벽하다.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이며 기계적이라 한다. 도시는 삶과 집약된 노동의 중심이다. 현대도시는 직선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있다. 건물, 하수-배수도, 차도, 보도 등의 건설 그리고 교통은 직선을 필요로 한다. 직선은 도시의 정신만큼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곡선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고 위험하다. 곡선이 교통을 마비시킨다. 직각은 일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도구라고 주장한다. 총체적으로, 도시의 발전은 이러한 엄밀한 계획과 일사불란한 단 하나의 명령에 의해 통일되어야 한다. 대도시는 전쟁, 평화, 노동 등 모든 것을 지배한다. 대도시는 세상의 작품이 생산되는 정신적 아틀리에라고 그는 말한다.

나는 어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역사도시 바그다드를 향해 포화를 퍼붓는 광경과 이라크군의 항전을 바라보면서 르코르뷔지에의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새겨보았던 것이다.

3백만 거주자를 위한 ‘우리시대의 도시’ 계획은, 그의 말대로 엄격한 이론적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현대 도시계획의 근본 원리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었다. 파리시민이, 아니 온 세상이 사랑하는 역사도시 파리의 심장부를 완전히 들어내고 외과수술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을 제안한 ‘브와쟁 계획’은 당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듯이, 기존의 생각, 관행, 나쁜 전통을 고발하고 고치려 했으며, 새로이 시작되는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엄정한 경고였다고 나는 이해한다. 당시의 모든 이들이 이 계획을 2000년이나 가능할 미래의 도시계획으로 평가했으나, 역사의 경험과 현실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면서 엄밀한 과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계획임을 당시 사람들로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 나는 한 언론인이 우리의 건축문화, 도시문화를 개탄하면서 쓴 글을 읽었다. “건축가들을 고발하고 싶다.” 그러나 과연 누가 누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건축과 도시는 우리 모두가 공모하여 연출해 낸 치졸한 작품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건축과 도시에 관한 좋은 텍스트를 많이 갖지 못했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건축가든 건축주든, 도시계획가든 도시행정가든 텍스트를 통해 엄밀한 연구와 탐색을 하지 않는다. 저 ‘당나귀’처럼 맹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무책임한 오늘에, 그리고 우리시대의 상징으로 연출되고 있는 출판도시의 건설 도정에 이 두 권의 책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하는 텍스트이다. ■